

IIIRI Online Series

코로나19 사태와 중국의 '일대일로' 전망

허 재 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2020. 6. 29

코로나19 사태와 중국의 ‘일대일로’ 전망



허재철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코로나19가 세계경제 및 국제질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면서 과연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를 계속 추진할 수 있을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중국경제도 어려운 상황에서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등의 국가들이 일대일로와 관련한 채무에 대해 탕감 및 상환 유예를 요구하고 있어 일대일로의 지속가능성에 의구심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중국의 정책 결정과정이나 중요 정보에 대한 접근에 한계가 있어 코로나19 사태가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분석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세 가지 변수에 대한 검토를 통해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먼저 중국이 당초 일대일로를 추진하고자 했던 ‘동인(動因)’이 여전히 유효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 다음 코로나19 이후 일대일로 추진에 대한 중국의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능력’에 변화가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일대일로는 시진핑 체제가 2013년부터 적극 추진하고 있는 국가급 프로젝트로서, 육상과 해상에서의 신(新)실크로드 건설을 통해 유럽과 아시아를 아우르는 거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하는 구상이다. 중국의 의도대로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성공할 경우, 인구 44억 명(세계 인구의 약 63%)과 GDP 규모 21조 달러(세계 GDP의 약 24%)에 이르는 거대한 시장이 탄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중국이 일대일로 구축에 나선 배경에는 ▲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한 새로운 동력과 안정적 에너지 확보, ▲ 지역 불균형해소를 통한 국내 균형발전 실현, ▲ 공급측 개혁 차원에서의 과잉생산 해소, ▲ 미국의 대중국 포위 전략에 대한 지정학적 대응, ▲ 위안화 국제화 등 글로벌 금융환경 구축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했다.

중국이 일대일로를 구축하고자 하는 이러한 동인은 코로나19 이후에도 변화가 없어 보인다. 오히려 그 필요성이 더욱 증대하고 있다. 세계은행이 발표한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2013년 7.68%에서 2014년 7.35%, 2015년 6.9%, 2016년 6.7%, 2017년 6.8%, 2018년 6.6%, 2019년 6.1%로 지속적인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자전거의 속도가 너무 느려지면 균형을 잃고 쓰러지듯, 중국경제가 안정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성장률이 필요하다. 따라서 일대일로라는 거대한 국가급 프로젝트의 힘을 빌려 중국경제의 페달을 굴리고자 하는 동인은 더욱 증대했다.

또한, 2020년 5월 22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된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의 「2020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서 ‘공급측 구조개혁 심화’가 변함없이 9대 중점업무에 포함됐다. 그리고 2021년 전면적 소강(小康)사회 건설을 위해 빈곤탈피가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로 부상함에 따라, 육상 실크로드의 주요 통로이면서도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서부 지역에 대한 개발은 더욱 절실해졌다. 실제로 지난 5월 17일에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은 「신시대 서부 대개발 추진 계획(中共中央 国务院关于新时代推进西部大开发形成新格局的指导意见)」을 발표한 바 있다.

게다가 지난 5월에 공개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접근(United State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보고서에서 나타나듯, 미국은 경제 및 가치관, 국가안보 측면에서 중국을 명확히 경쟁자와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고, 이에 따라 중국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G11, G12, 경제번영네트워크(EPN: Economic Prosperity Network) 등의 구상을 제기하고 있어 중국도 이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이렇게 일대일로를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여전히 유효함에 따라, 중국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일대일로 추진에 대한 ‘의지’를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 전인대에서 중국 정부는 코로나19의 비상 상황에 맞춰 코로나19 방역과 빈곤탈피 등을 올해 9대 중점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강조하면서도, 일대일로 지속 추진을 중점업무에서 빠뜨리지 않았다. 게다가 지난 6월 18일에는 ‘일대일로 국제협력 고위급 화상회의’를 개최하여, 시진핑 주석이 직접 코로나19로 인해 일대일로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었다고 하면서, 함께 힘을 합쳐 코로나19와 싸우자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문제는 ‘능력’이다. 중국이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을 감내하며 일대일로를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지가 관건이다.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1/4분기 중국 경기는 급격하게 침체되어 주요 소비 및 투자가 전년 동기대비 각각 -27.4%p, -22.4%p 하락한 -19.0%, -16.1%를 기록했다. 게다가 5월 개최된 전인대에서는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 목표치마저 제시되지 않았다. 그만큼 코로나19로 인해 중국경제가 받은 충격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중국은 코로나19 감염 사태를 비교적 조속히 수습하여 지난 2월 중순부터 중국 내 조업이 순차적으로 재개되었고, 지난 3월 16일 기준으로 이미 중국 내 조업 재개율이 평균 91.7%에 달했다(중국 정부 통계). 비록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고,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심각한 수준이어서 중국경제가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인다. 그럼에도 IMF는 올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주요국 중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인 1.0%로 전망했고, 내년에는 8.2%까지 급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 국내에서는 올해 성장률을 3% 전후로 보는 시각도 많다.

시진핑 체제의 통치 기반도 탄탄해 보인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걷잡을 수 없는 감염 확산과 리원량(李文亮) 사망 사건 등으로 한때 시진핑의 리더십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강력한 방역 정책으로 서구 선진국보다 코로나19가 조기에 수습되면서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에 대한 중국 국민들의 신뢰는 오히려 코로나19 이전보다 공고해 진 것으로 보인다.

중국경제가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에서 점차 회복되고 있고, 국내 정치도 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중장기 국가전략 프로젝트인 일대일로를 포기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물론 단기적으로 속도 조절과 일부 사업 조정 등은 불가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대일로 국제협력 고위급 화상회의’에서 중국은 일대일로 협력국에 대해 ▲ 코로나19 방역 및 경제 회복 지지, ▲ 백신 연구와 개발 등 협력, ▲ 인원과 화물의 신속 통로 구축, ▲ 국제 산업 및 공급 사슬 유지 등 코로나19에 맞춘 사업을 새롭게 약속했다. 또한, 6월 17일 개최된 ‘중국-아프리카 단결 방역 특별 정상회의’에서는 연말 만기가 다가오는 아프리카 국가의 무이자 채무 상환을 면제해 주고, 채무 상환 유예 기간을 추가적으로 연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코로나19로 인해 중국의 대내외 환경을 비롯하여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조성된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은 속도 조절과 일부 사업에 대해 조정을 해 가며 일대일로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끝/

저자 소개

허재철 박사는 중국인민대학에서 정치학 박사를 취득했고,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연구교수, 일본 리츠메이칸대학 JSPS 펠로우 등을 거쳐 현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경제실 중국지역전략팀에서 부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중국의 정치외교와 동북아 국제관계이며 미디어와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국제정치 연구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최근에는 『현대 중국외교의 네트워킹 전략 연구: 집합, 위치, 설계 권력을 중심으로』(2020, 공저), 『중국 지역연구와 지식네트워크』(2019, 공저), 『동아시아 공동번영과 한반도 평화』(2019, 공저), “Analysis of Modern China’s Summit Network”(2017) 등의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Email: jcheo@kiep.go.kr)